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4. Vol. 9, No. 1, 25 - 52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검증

이 은 희[†]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 153명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스트레스 요인들과 대처방식 및 정신 병리적 증상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활스트레스 요인들과 대처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와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생활스트레스와 대처방식들을 예언변인으로 두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구 문제와 가치관 문제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며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은 부적으로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은 정적으로 우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SREL을 이용한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장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의 역완충효과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결과가 상담현장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와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생활스트레스,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 정신병리, 우울, 조절효과

발달 단계적으로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의 타율에 의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방식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자아정체성 확립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같은 기본적인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한다. 이러한 심리, 사회적 생활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진로선택과 장애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하여 대학생들은 심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은희, (320-711) 충남 논산시 내동 26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E-mail: ehlee@hanmail.net

적 부담감을 갖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가 학업, 진로(구재선, 2000; 김기정, 1995; 김정호, 김선주, 오영희, 1995; 전영자, 김세진, 1999), 학업, 인간관계(장형석, 2000; 주종필, 민병일, 박성균, 2001), 학업, 건강(이혜성, 1989), 건강, 교양 및 여가(조명희, 박수선, 1998), 진로 및 취업, 대인관계 기술(윤병수, 정봉교, 1999) 등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학생생활 연구소를 찾은 대학생들이 호소하는 문제들 중 학업 및 진로의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박현순, 1999), 가장 상담을 받고 싶은 문제가 진로, 학업문제로 밝혀져서(박외숙, 1995; 송현중, 1996)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주로 학업과 진로문제로 인한 갈등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활스트레스는 다양한 신체병리 및 정신병리와 연관되는데(Dohrenwend & Dohrenwend, 1974, 1984; Fisher & Reason, 1988; Kaplan, 1996; 전경구, 1998에서 재인용), 생리적 증상(두통, 위통과 위경련, 요통, 목과 어깨의 뻣뻣함, 혈압상승, 피로감), 행동적 증상(울음, 건망증, 고함질, 비난, 자기과시, 강박적 껌씹기, 강박적 섭식), 정서적 증상(걱정, 우울, 흥분, 조바심, 분노, 좌절감, 고독감, 무력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서적 증상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병수, 정봉교, 1999)

이들 정서적 증상 중 우울은 정신병리의 중요한 지표의 한 가지로서 정신과 분야의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문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며(Silver & Wortaman, 1980; 김훈, 이귀행, 오상우, 1995에서 재인용), 최근 조사에서 대학생들의 26.8%가

우울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최미경, 2003) 우울증이 가장 심각한 청소년 정신병리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발병한 우울증은 성인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정신장애들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Harrington, Fudge, Rutter, & Pickles, 1990; Kovacs, Feinberg, Crouse-Novak, Paulauskas, & Finkelstein, 1984; Kovacs et al, 1984; Petersen et al, 1993에서 재인용),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교통사고 다음으로 높고 지난 10년간 급증하여(문화일보, 2003, 10, 14) 최근 가장 중요한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의 자살기도와 관련되는 위험요인(조성진 등, 2002; Cicchetti & Toth, 1998)임이 밝혀져,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우울증상을 감소시키는 청소년 상담전략이 요구된다.

우울은 가장 보편적인 스트레스 반응으로서 청소년기의 우울증상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대처방식과 연관되어(Compas, Orosan, & Grant, 1993; Seiffge-Krenke, 1993; Stern & Zevon, 1990; Colomba, Santiago, & Rossello, 1999에서 재인용),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적절한 대처방식의 사용이 우울증상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트레스의 존재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당면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적응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Aldwin & Revenson, 1987).

스트레스 처리 과정에서의 대처란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서 스트레스성으로 평가되

어진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요구를 관리하기 위한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91).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의 분류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구분으로서(Lazarus & Folkman, 1984/1991) 문제중심 대처 방식은 자신이 직면하는 스트레스원이나 문제 그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관리하는데 관련된 인지적, 문제 해결적 노력들과 정보추구 활동들 및 행동적 전략들에 중점을 두지만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은 정서적 distress를 감소시키거나 관리하려는 인지적, 심리내적, 행동적 노력들에 중점을 둔다(Folkman & Lazarus, 1980). 따라서 문제 중심적 대처 전략은 인지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정보수집, 시간관리, 목표설정 같은 전략을 포함하는 반면에 정서 중심적 대처 전략은 인지적 재구조화, 최소화, 밝은 면 바라보기, 유머, 돌보아 주는 사람들과 이야기, 약물이나 알코올의 사용을 통하여 회피하기 등의 전략들을 사용하여 상황의 의미를 변화시키려는 인지적 노력을 포함한다(Biggam, Power, & Macdonald, 1997).

그런데 긍정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대처전략이 보다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Aldwin & Revensin, 1987). 문제 중심적 대처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서 중심적 대처는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한 연구 결과들(Felton & Revenson, 1984; Mitchell, Cronkite, & Moos, 1983; Aldwin, 1994에서 재인용, Mitchell & Hodson, 1983; Kahana, Kahana & Young, 1987; Pruchno & Resch, 1989에서 재인용)이 있는 반면에 문제 중심적 대처는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증가시키지만 정서 중심적 대처는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들(Baum, Fleming & Singer, 1983; Marrero, 1982; Pruchno & Resch, 1989에서 재인용)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처전략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악화시키는 상황 특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의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 결과가 평가되는 시점(point in time), 대처방식과 상황적 요구들 간의 부합도(goodness of fit), 스트레스 상황의 심각성 정도가 대처전략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상황 특정적 요인으로서 작용한다(Aldwin, 1994).

대처는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직접효과), 대처가 다른 변인을 통하여 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간접효과),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완충하는 방식으로(조절효과¹⁾)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처가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효과 모델은 스트레스 수준과는 상관없이 대

1) 조절(moderation)이란 두 변인사이의 인과적 관계가 조절변인의 함수로서 변화하는 것을 말하며 매개(mediation)란 예언변인과 준거변인의 관계를 매개변인이 설명하는 정도의 함수를 의미한다(Baron & Kenny, 1986). 즉 조절변인(moderator variables)의 연구는 언제 어떤 효과들이 억눌려질 것 인지의 규명에 목적이 있지만 매개변인(mediator)에 대한 연구는 왜 어떻게 그런 효과들이 발생하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가 경영, 교육, 응용심리학 분야의 이론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여 조절변인이 "과학적 기업의 정수"(Hall & Rosenthal, 1991)라고까지 불리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은 이론적으로 효과의 발견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직접 현장연구에서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Morris, Sherman, & Mansfield, 1986). 그래서 Evans(1985)는 조절

처가 긴장과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즉 이 모델에서는 그 문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와는 상관없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대처는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반면에 완충효과모델(조절효과)은 스트레스가 긴장에 미치는 효과가 대처가 조절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즉 특히 스트레스 수준에 높을 때만 대처방식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대처방식의 직접효과 모델은 성격에 근거한 대처방식의 개념을 지지하며 대처방식이 외부적 환경과는 상관없는 개인의 정신 병리적 문제에 근거한 것임을 시사한다. 반면에 조절효과 모델은 개인과 상황의 상호작용에 근거한 모델을 지지하며 개인과 상황 양자의 효과가 접합하여 스트레스의 효과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Aldwin, 1994). 따라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는 실제 상담 장면에서의 내담자 교육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어떤 대처방식이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 병리적 증상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의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교육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조절효과를 발견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

며 특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증상간에 어떤 대처방식이 조절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조절적 중다회귀(Moderated Multiple Regression)분석과 하위집단 상관계수법(Subgroup Correlation Coefficients)이다(Zedeck, 1971). 이러한 전통적 방법들을 사용하여 회귀계수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측정의 신뢰도가 많은 연구들에서 주요관심사가 되었다(Aiken & West, 1991; Jaccard, Turrisi, & Wan, 1990). 즉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조절효과를 검증시에 예언변인과 조절변인간의 인위적인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 그 상호작용 항의 회귀계수의 유의미성을 검증하는데 측정오차가 혼입되어서 회귀계수에 있어서의 편향을 일으키고 상호작용효과의 통계적 검증력을 떨어뜨린다(Jaccard & Wan, 1995, 1996). 그러므로 측정오차들을 교정가능한 공변량 구조모형²⁾ 사용한 조절효과 검증이 요구된다. 그러나 상호작용 항들을 처리하기가 까다로우(Kline & Dunn, 2000)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매우 드물어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결국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 관

효과가 매우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변량의 1%만 설명해도 중요한 발견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 그리고 McClelland와 Judd(1993)는 실험연구에 비해서 현장연구에서 상호작용을 발견할 가능성이 20%이하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Champoux와 Perters(1987) 그리고 Chaplin(1991)은 사회과학 문헌들을 개관하여 현장에서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들에서 조절효과가 통상 총변량의 1-3%의 설명변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 조절변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검증된 보고는 많지 않다.

2) 현재는 Mx(Neale, 1995), LISREL 8(Jöreskog & Sörbom, 1993), SAS PROC CALIS(Hartmann, 1995), COSAN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음

리전략과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전략의 수립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활스트레스 요인들과 대처방식 및 정신병리 증상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활스트레스 요인들과 대처방식이 대표적인 정신병리 증상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인 직접효과와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조사대상자 및 조사절차

본 연구는 C대학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한 남녀 대학생 201명을 대상으로 하여 강의시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4주단위로 하여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조사에서는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척도와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에, 두 번째 조사에서는 대처방식 척도에, 세 번째 조사에서는 MMPI 검사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척도와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에 응답한 160명을 대상으로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척도, 한국판 CES-D 척도와 MMPI 검사 모두에 응답한 156명의 자료를 가지고 사전분석을 실시하였고, 다변량 극단치로 추정되는 3부를 제외한 153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1학년이 85명(55.6%), 2학년이 38명(24.8%), 3학년이 25명(16.3%), 4학년이 5명(3.3%)이었으며, 남학생이 79명(51.6%)이고 여학생이 74명(48.4%)이었다.

측정 도구

본 연구를 위한 조사 설문지의 측정변인들은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척도, 대처방식 척도,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 MMPI(다면적 인성검사)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척도 전경구, 김교현과 이준석(2000)이 전경구와 김교현(1991)이 개발한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를 개선한 4점 척도의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변안한 50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경험빈도와 중요도에 대하여 각각 4점 척도(0--'전혀', 1--'조금', 2--'상당히', 3--'자주')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 .90$ 이었다.

대처방식 척도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대처방식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 68문항 중 김정희와 이장호(1985)가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서 수정 보완한 6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사용안함(0점)'에서 '아주 많이 사용(3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된 대처방식이 빈번히 사용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 .75$ 이었다.

한국판 CES-D 척도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Radloff, 1977)를 전경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우리나라에 맞게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 20 문항을 사용하였다. 지난 1주 동안 각 문항에 대

하여 자신이 느끼고 행동한 정도를 4점 척도(0--'극히 드물게'(1일 이하), 1--'가끔(1-2일)', 2--'자주'(3-4일), 3--'거의 대부분'(5-7일))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 .83$ 이었다.

MMPI(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척도 Hathaway와 McKinley(1940; 최정운, 2002에서 재인용)에 의해서 개발되어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에서 우리나라에 맞게 개정된 한국판 다면적 인성검사(김영환 외, 1989) 56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 '아니다'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응답결과가 비정상 행동의 종류를 측정하는 10가지 임상척도(Hs(건강염려증), D(우울증), Hy(히스테리), Pd(반사회성), Mf(남성특성-여성특성)), Pa(편집증), Pt(강박증), Sc(정신분열증), Ma(경조증), Si(내향성))와 4가지 타당도 척도(?, L, F, K)에 따라 채점되는데 각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된 병리적 증상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료분석

SAS를 이용하여 대처방식 척도를 탐색적 요인분석의 일종인 공통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요인분석 중 특수변량과 오차변량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고 각 문항들내의 요인구조의 탐색에 목적이 있어서 주축요인분석(Principal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직각회전(Varimax rotation)을 하도록 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정희(1987)의 연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요인의 개수는 4개로 정하였으며 각 요인별 문항을 선정할 때 요인 부하량이 .40이상인 경우에만 포함시켰으며(Cudeck & O'Dell, 1994). 특정 문항이 2개 이상의 요인에 대하여 .40이상의 부하량을 가지는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11문항)"과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11문항)"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7문항)"과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9문항)"을 선정하여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 계수인 Cronbach α 는 요인 1이 .72이고 요인 2가 .79이었다.

구성개념들 간의 가설적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각 측정 변인들의 신뢰도와 단일차원성(Hunter & Gerbing, 1982)을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일치도(Cronbach, 1951)를 사용하여 추정하는데, 내적일치도는 척도의 항목들이 단일차원성임(Nunnally, 1978)을 가정한(Lee, Jamieson & Earley, 1996에서 재인용). 그런데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이 내적일치도, 문항의 전체상관들,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보다 단일차원성의 검증에 보다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Gerbing & Anderson, 1988) 각 측정변인들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LISREL 8(Jöreskog & Sörbom, 1993)의 최대가능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대처방식과 생활스트레스 변인들의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입력자료로서 공분산행렬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부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GFI(Goodness of Fit Index, Jöreskog & Sörbom, 1981; Tanaka & Huba, 1985, 1989), NNFI

표 1. 각 척도들의 초기문항들과 최종선정문항들의 부합도

척도	문항수	χ^2	df	p	χ^2/df	GFI	CFI	RMSEA	표준화잔차	
									> 2.58 갯수(%)	
문제중심 대처	초기	11	79.33	44	<.001	1.80	.912	.904	.076	3(5%)
	최종	9	29.10	27	.36	1.08	.961	.991	.022	0(0%)
정서중심 대처	초기	11	66.00	44	.02	1.50	.930	.906	.056	3(5%)
	최종	7	12.93	14	.53	.92	.977	1.00	.00	0(0%)
경제 문제	초기	7	54.36	14	<.001	3.88	.911	.920	.135	3(11%)
	최종	4	.01	2	.99	.005	1.00	1.00	.00	0(0%)
이성과의 관계	초기	6	35.99	9	<.001	4.00	.930	.884	.137	3(14%)
	최종	4	3.012	2	.22	1.51	.991	.989	.056	0(0%)
교수와의 관계	초기	6	25.54	9	.002	2.84	.949	.906	.108	2(10%)
	최종	4	3.01	2	.22	1.51	.991	.989	.056	0(0%)
가족과의 관계	초기	6	33.20	9	<.001	3.69	.935	.907	.130	3(14%)
	최종	4	.40	2	.82	.20	.999	1.00	.00	0(0%)
진로 및 장래 문제	초기	8	57.27	20	<.001	2.86	.917	.920	.108	2(6%)
	최종	4	2.92	2	.23	1.46	.990	.994	.054	0(0%)
가치관 문제	초기	5	5.85	5	.32	1.17	.986	.994	.033	0(0%)
학업 문제	초기	7	106.61	14	<.001	7.62	.839	.638	.204	4(14%)
	최종	4	1.65	2	.44	.83	.995	1.00	.00	0(0%)
친구와의 문제	초기	5	46.40	5	<.001	9.28	.896	.798	.00	3(20%)
	최종	4	1.02	2	.60	.51	.997	1.00	.228	0(0%)

(Non-Normed-Fit Index, Marsh, Balla, & McDonald, 1988), CFI(Comparative-Fit-Index, Bentler, 1989, 1990),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Steiger, 1990), χ^2 , χ^2/df 에 대한 p값, χ^2/df 지수, 표준화 잔차의 비율 등 다른 다중 통계치들이 사용되었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초문항들이 부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치관 문제로 인한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제외하고는 각 척도마다 표준화 잔차가 큰 문항들을 하나씩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각 문항들(부록 I)의 측정모형은 부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다변량 극단치를 SAS

의 R-student, Cook's Distance, Dffits, Dfbetas 통계량을 통하여 검증하여 다변량 극단치로 의심되는 3명의 자료를 제외시켰다.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울점수는 CES-D와 MMPI의 D점수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 학년에서 기인한 변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먼저 학년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우울을 예언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요인들(경제 문제, 이성과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 가족관계, 진로 및 장래 문제, 가치관 문제, 학업 문제, 친구와의 문제)을 예언변인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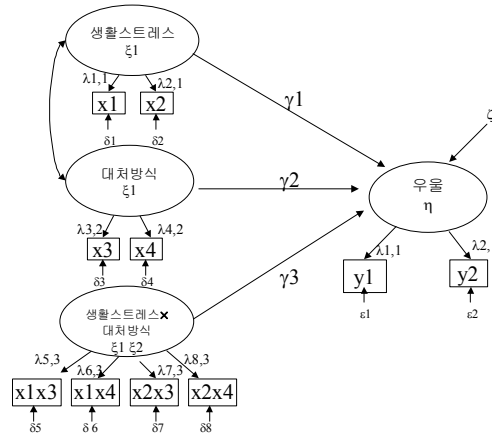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델과 이론모델의 관계

그림 1. 측정모델과 이론모델의 관계

로 하여 우울을 예언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3단계에서 대처방식들(문제 중심적 대처, 정서 중심적 대처)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 변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대처방식들이 완충할 것인지를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조절효과 검증은 최근 1)충분 정보 최대가능법(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ML; 예, Jaccard & Wan, 1995; Jöreskog &

Yang, 1996; Ping, 1996)³⁾과 2)제한된 정보 2단계 최소자승법(limited information two-stage least squares(2SLS; Bollen, 1995)⁴⁾의 2종류의 추정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원자료를 사용하는 Jöreskog와 Yang(1996)의 다중측정변수 접근법과 평균편차형태로 자료를 변환한 자료를 사용하는 Jaccard와 Wan(1995)의 다중측정변수 접근법 두 방법 중 Jöreskog와 Yang의 단일측정변수 접근법이 보다 경제적이지만 각 외생변인들의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의 형태들이 같다는 타우 동형추정(tau equivalent

- 3) 연속적인 잠재변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의 추정을 위한 공변량 구조적 접근은 Busemeyer와 Jones(1983), Kenny와 Judd(1984)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최근 Jöreskog와 Yang(1996)의 단일 교적합 측정변수 접근법(single product indicator), Jaccard와 Wan(1995)의 다중 교적합 측정변수 접근법(multiple product indicator), Ping(1996)의 2단계 다중 교적합 측정변수 접근법(two-step multiple product indicators)의 방법들이 제안되어졌다. 그런데 다중 교적합 측정변수 접근법(multiple-product-indicator approach)은 원점수들의 중심화(centering)와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단일교적합 측정변수 접근법(single-product-indicator approach)은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을 요구하지만 원자료를 사용하며 평균 구조(mean structure)를 사용하여 절편(intercept)을 추정토록 하는 방법이다.
- 4) 2SLS방법은 관찰된 변인들의 joint distribution의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에 보다 내강하며 기존의 통계패키지(SAS, SPSS)를 사용하여 쉽게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의 표집을 요하며 다른 추정방법들에 비해서 낮은 검증력과 효율성의 단점이 있다(Schermelleh-Engel, Klein, & Moosbrugger, 1998).

measure)모델의 가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Yang Jonsson(1997; Yang Jonsson, 1998에서 재인용)의 시물레이션연구에서 다중측정지수 방법이 단일측정지수 방법보다 표준오차는 과소 추정하지만 덜 편기(biased)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Jaccord와 Wan의 다중측정변수 접근법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최대가능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최대가능법은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을 요구하는 데,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루지 못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PRELIS (Joreskog & Sorbom, 1988)를 이용하여 구한 접근 공분산 행렬(asymptotic covariance matrix)을 이용하여 정규분포의 가정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가중최소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유의한 조절효과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상호작용효과를 제외시킨 공변량 구조분석을 다시 실시하여 단순 주효과모델만의 설명량을 구하여 상호작용효과에 의한 순수한 증분량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예언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효과에 조절변인의 효과를 예시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조절변인(> +1 표준편차의 표집)과 낮은 수준의 조절변인(< -1 표준편차의 표집)을 사용하여 단순회귀분석하여 도표로서 제시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제시되었듯이 응답 대학생들은 학업 문제, 장래 및 진로 문제, 가치관 문제, 경제 문제 순으로 생활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을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MPI의 8개 정신 병리적 임상증상 척도의 평균점수들이 45.23에서 48.67까지 분포하여 정상 범위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인	M	SD
생활스트레스		
전체	1.87	.74
친구 문제	.78	.93
이성과의 관계	1.24	1.02
가족과의 관계	1.13	1.13
교수와의 관계	1.31	1.16
학업 문제	2.90	1.25
가치관 문제	2.67	1.31
경제 문제	2.14	1.15
장래 문제	2.77	1.58
대처방식		
문제 중심적	1.48	.58
정서 중심적	1.03	.57
MMPI		
Hs	48.67	8.99
D	47.10	10.11
Hy	48.50	9.20
Pd	47.89	9.98
Pa	45.23	9.85
Pt	46.73	9.20
Sc	45.74	9.35
Ma	47.15	9.95
CES-D	15.98	7.74

주. N = 148

CES-D 점수에 있어서 절단점 16점을 ‘가능한’ 우울증 증상(‘probable’ depressive symptoms)군으로 절단점 25점을 DSM-III-R의 주요우울증에 대응하는 ‘명확한’ 우울증 증상(‘definite’ depressive symptoms)군의 선별할 수 있는 준거로 볼 때(조맹제, 김계희, 1993) ‘가능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44.1%이며, 남학생의 경우

표 3. 생활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정신병리적 증상들간의 상관

변인	Hs	D	Hy	Pd	Pa	Pt	Sc	Ma
생활스트레스								
전체	.06	.29***	.16*	.21**	.20*	.22**	.27**	.10
친구 문제	.19*	.20*	.22**	.14	.25**	.20*	.31***	.15
이성과의 관계	.06	.11	.10	.08	.03	.01	.06	.06
가족과의 관계	.12	.19*	.13	.26***	.05	.14	.18*	.21*
교수와의 관계	-.01	.11	.06	.14	.14	.05	.17*	.00
학업 문제	.05	.15	.16	.08	.11	.16	.17*	-.04
가치관 문제	.00	.26**	.09	.18*	.26**	.27***	.21*	.18*
경제 문제	.04	.20*	.14	.12	.16	.17*	.24**	.00
장래 문제	-.08	.17*	-.07	.05	-.05	.07	.05	.00
대처방식								
문제 중심적	-.10	-.24**	-.08	-.11	-.09	-.17*	-.22**	.11
정서 중심적	.22**	.27***	.13	.11	-.02	.24**	.29***	.13

주. N = 148

40.0%, 여학생의 경우에는 48.7%로 나타났다. 또한 ‘명확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14.3%이며, 남학생의 경우 11.8%, 여학생의 경우에는 17.1%로 나타났다.

생활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신병리적 증상들간의 관계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생활스트레스가 대처방식 및 정신 병리적 증상들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생활스트레스 전체 점수와 6개의 정신 병리적 증상들(우울, 정신분열증, 강박증, 반사회성, 편집증, 히스테리 증상)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친구 문제로 인한 생활스트레스와 6개의 정신 병리적 증상들(정신분열증, 편집증, 히스테리, 강박증, 우울증, 건강염려증)이, 가치관 문제로 인한 생활스트레스와 6개의 정신 병리적 증상들(강박증, 우울증, 편집증, 정신분열증, 경조증, 반사회성)이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가족관계 생활스트레스와 4개의

정신 병리적 증상들(반사회성, 경조증, 우울증, 정신분열증)이, 경제 문제로 인한 생활스트레스는 3개의 정신 병리적 증상들(정신분열증, 우울증, 강박증)이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교수와의 관계로 인한 생활스트레스와 학업 문제로 인한 생활스트레스가 정신분열증이, 장래 문제로 인한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증상간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한편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은 3개의 정신 병리적 증상들(우울, 정신분열증, 강박증)과 유의한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은 4개의 정신 병리적 증상들(정신분열증, 우울증, 강박증, 건강염려증)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생활스트레스와 학업 문제로 인한 생활스트레스가 정신분열증이, 장래 문제로 인한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증상간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한편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은 3개의 정신 병리적 증상들(우울, 정신분열증, 강박증)과 유의한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은 4개의 정신 병리적 증상들(정신분열증, 우울

증, 강박증, 건강염려증)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결국 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생활스트레스와 가치관 문제로 인한 생활스트레스가 대학생들의 정신 병리적 증상들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며,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은 이들의 정신 병리적 증상들을 감소시키고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은 정신 병리적 증상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회귀모델에 대한 잔차의 독립성, 등분산성, 정규분포의 가정(최종후, 이재창, 1990)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 하위척도들과 대처방식 하위척도들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우울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회귀모델에 대한 잔차의 독립성⁵⁾, 등분산성⁶⁾, 정규분포의 가정⁷⁾을 검증한 결과 가정이 충족되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 하위척도들(친구문제, 이성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 학업 문제, 가치관 문제, 경제 문제, 장래 및 진로 문제)

과 대처방식 하위척도들(문제 중심적 대처방식,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이 우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예언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4에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제시되었듯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우울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인 학년에 의해서 3.3%가 설명되고 생활스트레스 변인들에 의해서 16.0%가 설명되며 대처방식 변인들에 의해서 12.3%가 설명된다. 학년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생활스트레스 하위 척도들 중에서 가치관 문제에 기인한 생활스트레스가 응답 대학생들의 우울증상을, $\beta = .28, p < .01$, 친구 문제로 인한 생활스트레스가 응답 대학생들의 우울증상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언하였다, $\beta = .14, p < .01$. 또한 학년과 생활스트레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이 응답 대학생들의 우울증상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언하였으며, $\beta = -.28, p < .01$,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이 응답 대학생들의 우울증상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언하였다, $\beta = .27, p < .01$.

따라서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중 가치관 문제와 친구 문제로 인한 생활스트레스가 응답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우울증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예언변인이며,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은 응답 대학생들의 우울증상을 떨어뜨리지만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은 응답 대학생들의 우울증상을 증

5) 각 독립변인들의 오차들간의 독립성 검증을 위한 Durbin-Watson의 통계량 $D = 2.06$ 으로서 2에 가깝고 이때 1차 자기상관 $r = -.03$ 으로서 독립성의 가정이 충족되었다.

6) 잔차와 예언치와의 plot을 분석해보면 대략적으로 0을 중심으로 무선적으로 등분산적으로 퍼져있으며, 이분산 검증결과 잔차가 등분산성을 이룬다는 원가설을 부정하지 못하여 잔차의 등분산성의 가정이 충족되었다, $\chi^2(65, N = 153) = 56.85, p = .75$.

7) 잔차의 정규분포성 검증을 위한 Shapiro-Wilk 통계량 $W = .98, p = .62$ 로서 정규분포에서 나왔다는 가설을 부정할 수 없으며, 편포도(skewness) = .17, 첨도(kurtosis) = -.15이고 잔차의 정규 확률분포 그림도 중심분포를 따르고 있어서 잔차들의 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 생활스트레스 하위변인들과 대처방식들로부터 우울을 예언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단계	예언변인	β	R^2	$Adj.R^2$	ΔR^2	$\Delta Adj.R^2$	F
1	사회인구학적 변인 block(통제변인)						
	학년	-.12*	.039	.033	.039	.033	6.17*
2	생활스트레스 하위변인 block						
	친구 문제	.14**					
	이성과의 관계	.07					
	가족과의 관계	.05					
	교수와의 관계	-.03					
	학업 문제	.06					
	가치관 문제	.28**					
	경제 문제	.01					
	장래 문제	.00	.241	.193	.202	.160	5.05***
3	대처방식 변인 block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	-.28**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	.27**	.365	.316	.124	.123	7.37***

주. β = 최종 회귀모델에서의 각 변인들이 표준화된 회귀계수. R^2 = block들의 투입후의 누적설명변량. $Adj.R^2$ = 예언변인들의 수를 조정한 block들의 투입후의 누적설명변량. ΔR^2 = block 투입후의 설명변량의 변화. $\Delta Adj.R^2$ = 예언변인들의 수를 조정한 block들의 투입후의 설명변량의 변화. F = 각 단계에서의 전체 모델의 유의성 검증치.

N = 153.

* $p < .05$. ** $p < .01$. *** $p < .001$.

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 하위변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처방식들의 조절효과

대학생들의 각 생활스트레스 요인(경제 문제, 이성과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장래 문제, 가치관 문제, 학업 문제, 친구와의 관계)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과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의 개별적인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각 조절변인별로 8회의 조절효과 검증이 이루어져 총 16회의 조절효과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장래 문제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문

제 중심적 대처방식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공변량 구조모형을 위한 다변량분석을 위해서도 다변량 오차항들의 독립성, 등분산성, 정규분포의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Kline, 1998). 그래서 SAS를 이용하여 독립성과 등분산성의 가정을, PRELIS를 이용하여 일변량 정규분포와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을 검증하였다.

SAS를 통하여 장래문제와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모델에 대한 잔차들의 다변량 가정 중 독립성⁸⁾과 등분산성⁹⁾이 충족되었다.

PRELIS를 통하여 일변량 정규분포의 가정¹⁰⁾을 검증한 결과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다변

8) Durbin-Watson의 통계량 D = 2.03, 1차 자기상관 $r = -.02$

9) $\chi^2[5, N = 153] = 5.05, p = .41$

10) 우울, 편포도, $z = 1.94, p = .06$, 첨도, $z = .29, p = .77$, 편포도와 첨도를 조합한 검증치, $\chi^2 = 3.85, p = .15$,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은 가정이 충족되었다, 편포도, $z = 1.08, p = .28$, 첨도, $z = .41, p = .68$, 편포도와 첨도를

량 정규분포의 가정¹¹⁾을 검증한 결과 가정이 충족되었다.

최대가능법을 이용한 추정방법의 표준오차나 χ^2 같은 검증 통계치들이 표본이 정규분포를 벗어날 시에는 적합하지 않고 단지 가이드라인 정도로 간주해야 한다(Jöreskog & Yang, 1996). 그러나 점근 공분산 분포를 이용한 추정방법들(LISREL의 WLS, DWLS; EQS의 AGLS)이 400사례이하의 작은 표집에는 부적합하며(Aiken & West, 1991; Jaccard & Wan, 1995; Jöreskog & Yang, 1996), 자료가 정규분포가정의 위반시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Anderson & Gerbing, 1984; Chou, Bentler, & Satorra, 1991; Hu, Bentler, & Kano, 1992; Muthén & Kaplan, 1985, 1992)에서 최대가능법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심하게 벗어나지 않을 때에는 정규분포의 가정의 위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Monte Carlo 연구에서 최대가능법이 다변량 정규분포보다도 일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의 위반에 내강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서(Jaccard & Wan, 1996) 최대가능법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부록 II에 LISREL 입력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 설정모델의 구조경로에 대한 분석결과가 그림 2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래 문제로 인한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구조모델은 χ^2 에 대한 p 값이

.05이상이고 GFI, NNFI, CFI 지수들이 기준치인 .90이상이며 RMSEA 지수는 기준치인 .05에 근접하여 만족할만한 부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기울기)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장래 문제와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이 우울에 공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2.01, p < .05$. 또한 장래 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t = 2.79, p < .01$, 문제 중심적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주효과도 나타났다, $t = -3.63, p < .01$.

증분중다상관의 상호작용효과의 크기는 상호작용모델($R^2_{y, x_1, x_2, x_3, x_4, x_1x_3, x_1x_4, x_2x_3, x_2x_4}$)과 단순 주효과모델($R^2_{y, x_1, x_2, x_3, x_4}$)의 중다상관(R^2)의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이루어진다(Jaccard, Turrisi, & Wan, 1990). 본 모델에서의 상호작용모델의 R^2 은 .211이고 단순 주효과모델의 R^2 은 .133로서 그 차이 값 ΔR^2 은 .078이며 이는 상호작용효과가 우울 측정변수들의 변량의 7.8%를 설명함을 의미한다. 또한 Cohen(1988)의 공식을¹²⁾ 사용하여 계산한 조절효과의 유의미성 정도인 f^2 는 .10으로서 Cohen의 임계치(.02)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장래 문제와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의 상호작용에 관한 설명의 목적을 위해서 높은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은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 평균점수의 +1 표준편차 이상의 표집을, 낮은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은 -1 표준편차

조합한 검증치, $\chi^2 = 1.33, p = .51$. 그러나 장래 및 진로문제 관련 생활스트레스는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다, 편포도, $z = 1.08, p = .28$, 첨도, $z = -4.17, p < .001$, 편포도와 첨도를 조합한 검증치, $\chi^2 = 17.36, p < .001$.
 11) 편포도, $z = 1.22, p = .22$, 첨도, $z = .42, p = .68$, 편포도와 첨도를 조합한 검증치, $\chi^2 = 1.66, p = .44$
 12) $f^2 = (R^2_{y, x_1, x_2, x_3, x_4, x_1x_3, x_1x_4, x_2x_3, x_2x_4} - R^2_{y, x_1, x_2, x_3, x_4}) / (1 - R^2_{y, x_1, x_2, x_3, x_4, x_1x_3, x_1x_4, x_2x_3, x_2x_4})$

표 5. 설정모델의 구조경로(최대가능법)

경로계수 (parameter)		비표준화된 추정치(표준오차) (Unstandardized(SE))	표준화된 추정치 (Standardized)	고정지수 (t-value)
장래 문제	→ 우울	.869(.311)	.286	2.791**
문제 중심적 대처	→ 우울	-1.266(.349)	-.364	-3.626**
장래 문제 × 문제 중심적 대처	→ 우울	.241(.120)	.209	2.009*

주. N = 153, 양방검증, *p < .05.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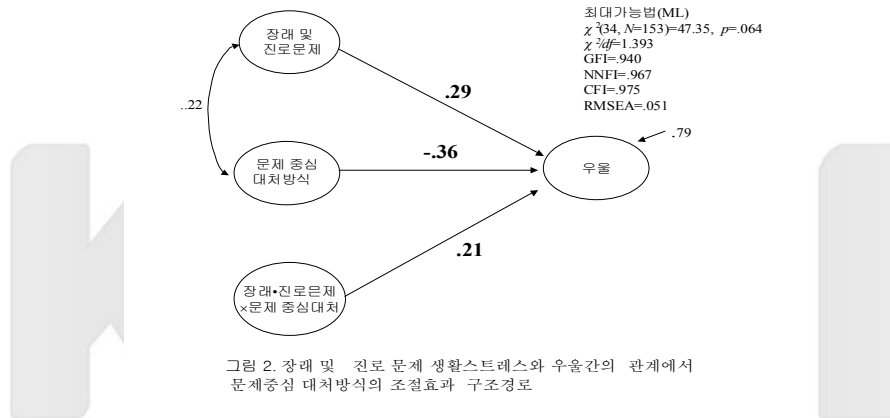


그림 2. 장래 및 진로문제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문제중심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구조경로

이하의 표집을 사용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림 3에 도해된 바와 같이 문제 중심적 대처 방식 점수가 높은 응답자들이나 낮은 응답자들 모두 장래 문제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간에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문제 중심적 대처 방식 점수가 높은 응답자들이 보다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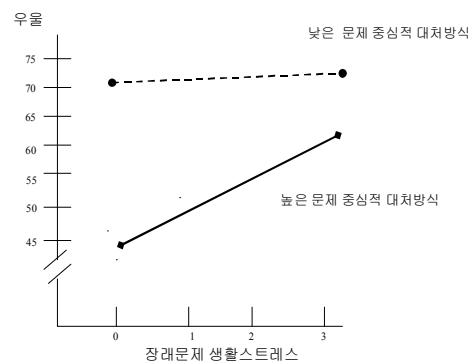


그림 3. 장래 문제 생활스트레스와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과의 상호작용 (높은 문제중심대처집단 $y = 4.91x + 45.07$, 낮은 문제중심대처집단 $y = .61x + 70.7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정신병리적 증상간의 관계를 알아보았고, 생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우울증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CES-D 16점 이상을 기준으로 한 가능한 우울증상 유병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44.1%의 유병율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유병율 32.74%(서국희, 조맹제, 1997), 38.9%(조성진 등, 2001)에 비해서도 높아서 대학생들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정서적 부적응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초기에 이들의 주요 정신병리 증상으로서 우울증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이를 확인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대학생들은 생활스트레스 중 학업 문제와 장래 및 진로 문제로 인한 생활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 및 진로 문제로 인해서 가장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연구결과들(구재선, 2000; 김기정, 1995; 김정호, 김선주, 오영희, 1996; 전영자, 김세진, 1999)과 일치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현장에서 다루어야 할 갈등영역 중 학업과 진로 문제로 인한 갈등이 가장 핵심적인 영역임을 시사한다.

셋째, 친구 문제와 가치관 문제로 인한 생활스트레스가 정신 병리적 증상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 문제와 가치관 문제로 인한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을 예언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신입생들은 재학생들에 비해서 교우 문제와 가치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박경(1994)의 연구, 생활스트레스 중 친구 문제와 가치관 문제로 인한 생활스트레스가 우울과 불안 증상과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전경구 등(2000)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중, 고등학교 시기의 통제되고 수동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청소년기 발달과업인 정체성 확립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지체시켜 오다가, 대학생생활을 시작하면서 독립적 능동적인 생활환경으로의 대전환 및 적응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동안 지체된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되는 압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시기에 경험하였던 학교생활, 가정문제,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 외에 정체감 및 가치관 확립, 확대된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새로운 스트레스에 적응하여야 된다.

Chickering과 Reisser(1993; Evans, Forney & Guido-DiBrito, 1998에서 재인용)는 대학생들의 정체감 형성에 기여하는 7가지의 심리사회적 발달 벡터(vector)를 제안하였다. 즉 유능성(지적, 신체적, 대인)의 발달, 정서의 관리(정서를 적절히 표출하고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인식하고 수용하기), 자율을 거쳐 독립으로의 이동, 성숙한 대인관계로의 발달, 정체감 확립, 삶의 목적 발달, 통합적 시각의 발달이라는 7가지 벡터를 제안하였는

데 적절한 정서관리, 성숙한 대인관계, 정체감과 가치관의 확립이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1-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가치관 확립과 성숙한 대인관계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상담전략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 모두 우울을 예언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문제 중심적 대처는 부적인 영향을, 정서 중심적 대처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문제 해결·재평가 대처방식과 적극적 기분전환 대처방식이 우울과는 부적으로 꼭 참거나 혼자서 해결하려는 자기통제 대처방식과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등의 부정적 감정발산 대처방식이 우울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한 최미경(2003)의 연구,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과 기분전환, 긍정적 재해석 등의 대처가 효율성이 높고, 정서억제나 부정, 행동적 결연, 포기 등이 효율적이지 못한 대처방식으로 지각되어 진다고 보고한 김교현과 전경구(1992; 김득란, 1996에서 재인용)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결국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문제 중심적 대처는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서 중심적 대처는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직접효과가 있어서(Felton & Revenson, 1984; Mitchell, Cronkite, & Moos, 1983; Aldwin, 1994에서 재인용, Mitchell & Hodson, 1983; Kahana, Kahana & Young, 1987; Pruchno & Resch, 1989에서 재인용), 문제 중심적 대처가 보다 효율적인 대처방식인 것인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지적 재구조화

훈련을 실시한 결과 불안과 분노 수준이 감소하고 자존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Haines & Szyjakowski, 1990) 우울증상(윤호열, 이희백, 천성문, 1997)과 정서적 신체적 증상(고미자, 유미숙, 김양곤, 2003)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스트레스 관리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합리-정서-행동치료(REBT, Ellis, 1995), 인지-행동치료(A. Beck, 1993; J. Beck, 1997), 스트레스 면역훈련(Meichenbaum, 1993) 등의 인지 행동적 치료 전략들을 사용하여 보다 적응적 사고 형태로 인지적 재구조화시켜(Mahoney & Arnkoff, 1978; Olshevski, Katz, Knight & McCallum, 1999에서 재인용) 부정적 정서적 반응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7단계(문제의 식별-현실적 목표의 설정-선택지들의 탐색-결과들에 대한 고려-결정-행동화-평가)로 진행되는 문제 중심적 스트레스 관리훈련 모델(Palmer, 1997; Wasik, 1984; Milner & Palmer, 1998에서 재인용)과 같은 구체적이고 문제해결적인 스트레스 관리기법을 사용하는 인지적 상담기법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관리 훈련에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대학생들의 장래문제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이 역완충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여성들의 경우에 직장일이 자녀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갈등, 직무가 여가수행을 방해하는 갈등, 직무가 가사수행을 방해하는 갈등이 탈진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 대처가 역완충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된 이은희, 최태산, 임은정(200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서는 스트레스원에 대한 문제 해결적인 적극적 대처가 오히려 정서적 신체적 병리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검사 점수에 맞추어 전공지식과 진로에 대한 확신없이 대학에 진학하였다(이지현, 이은희, 이득연, 임현선, 최태산, 1998) 대학진학 후에도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진로설정을 하지 못하고 주로 4학년 때 구체적인 진로결정을 하다보니(황상민, 이세안, 1996), 3-4학년 때 진로설정 및 취업관련 갈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은희, 송진한, 이지현, 1998). 이러한 진로설정 및 취업관련 갈등은 자존감을 저하시켜서 결국은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의석, 노안영, 2001).

IMF를 전후하여 대학생들이 상담실에 찾아와 호소하는 문제가 학업 및 진로, 우울 및 자살문제, 불안 및 강박증상의 호소문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박현순, 1999), 최근 우리나라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취업한파가 지속되면서 구직자 10명중 6명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나 소화불량, 불면증, 두통, 대인기피증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03, 8, 20). 이들의 35.2%는 이러한 취업스트레스에 대해서 주로 별다른 대책없이 지내고 있으며 32.9%는 미취업을 비관해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처방식의 효과성은 상황에 대한 통제가능성(Conway & Terry, 1992)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Endler, Speer, Johnson & Flett, 2000)이 중요하다. 그런데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를 풀다가 계속적으로 좌절을 경험한 피험자들이 그

후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Kofta & Sedak, 1989) 무력감에 빠져 우울증을 유발하는 경우처럼(Seligman, 1975; 장형석, 2000에서 재인용), 극심한 취업난으로 대학졸업자의 56%가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동아일보, 2003. 6. 10)에서 대학생들의 적극적 구직노력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오히려 지속적인 좌절 경험을 통한 무기력 심리를 유발하여 결국은 우울증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로설정 및 취업문제로 인한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및 취업 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구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노력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떨어진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상담전략을 통하여 우울과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치료적 개입은 일반적으로 예방(스트레스 관리 훈련)과 치료(상담)의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Hardy & Barkham, 1999), 장기적인 진로 및 취업관련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상담을 통한 심리치료적 개입이 보다 바람직한 전략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우울증상이 심각한 수준이며, 주로 학업문제와 진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며, 친구와 가치관 문제로 인한 생활스트레스가 정신 병리적 증상과 연관되며, 문제 중심적 대처는 우울증상을 떨어뜨리고 정서 중심적 대처는 우울증상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문제로 인한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의 사용이 오히려 우울증상을 증폭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이런 결과는 상담현장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적응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인지적 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춘 문제 해결적 집단상담이나 스트레스 관리훈련 형태를 취하고, 대인관계와 가치관문제로 인한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법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특히 장애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우선 개인상담을 통하여 정서적 부적응 문제를 다루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많은 대학의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자료를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 진로 및 장애문제로 인한 갈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단기적으로는 부적응적인 대처기제로 확인된 문제 중심적 대처가 장기적으로도 부적응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구제선 (2000).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자기효능감과 대처방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고미자, 유숙자, 김양곤 (2003). 해결중심 집단상담이 비

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반응과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3(3), 440-450.
김기정 (1995). 서원대 재학생들의 학교 적응 실태 조사. 학생생활연구, 13, 1-19. 서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김득란 (1996).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 비행과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15, 49-76. 강릉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김영환, 김재환, 김중술, 노명래, 신동균, 염태호, 오상우 (1989). 다면적 인성검사(MMPI). 서울: 한국가이던스.
김정호, 김선주, 오영희 (1995). 덕성여대생들의 생활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1, 37-49. 덕성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희, 이장호 (1985).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행동과학 연구, 7, 127-138.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김훈, 이귀행, 오상우 (1995). 스트레스 지각·성격 특성·대처 방식 및 사회적 지지가 정신분열증환자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34(1), 228-239.
동아일보 (2003, 6, 10). 올 대졸자 절반 "아직 취업 못해".
문화일보 (2003, 10, 14). 청소년 자살환자 87% 정신과적 문제.
박경 (1994). 대학생의 스트레스 유형과 대처방식: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6, 27-43.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박외숙 (1995). 울산대학교 학생들의 문제유형별 심각성 정도와 교내 상담실 방문을 통한 상담요청의 지. 학생생활연구보, 12, 51-60. 울산대학교 학생생활교육원.
박현순 (1999). 10년간 대학생들의 상담 호소문제 변화

- 추세. 학생연구, 33(1), 9-18, 서울대학교 학생 생활연구소.
- 서국희, 조맹제 (1997). 지역사회거주 청소년의 우울 증상 유병율. 정신의학, 22(2), 113-123.
- 송현종 (1996). 내담자의 호소에 나타난 대학생들의 문제분석. 학생생활연구, 8, 43-63. 여수수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연합뉴스 (2003. 8. 20). 구직자 10명중 6명 스트레스성 '취업병'.
- 윤병수, 정봉교 (1999). 영대생의 스트레스 요인, 수준, 및 증상에 대한 조사연구. 학생연구, 30(1), 27-57, 영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윤호열, 이희백, 천성문 (1997). 스트레스 관리훈련과 통제소재가 지각된 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367-407.
- 이은희, 송진한, 이지현 (1998). 대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지도를 위한 탐색적 연구: 관련변인들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30, 51-70.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은희, 최태산, 임은정 (2000).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갈등과 탈진과의 관계: 적극적 대처, 사회적 지원 요청 대처, 회피 대처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1), 183-204.
- 이지현, 이은희, 이득연, 임현선, 최태산 (1998). 1998년도 전남대학교 신입생실태조사, 1-55,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혜성 (1989). 대학생 문제진단 및 해결행동 체크리스트 제작연구. 학생생활연구, 25, 42-103.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생활지도연구소.
- 장형석 (2000).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원천과 대처전략.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보, 32, 101-115.
- 전경구 (1998).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 II. 재활과학연구, 14(1), 15-37. 대구대학교.
- 전경구, 김교현 (1991).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제어이론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137-158.
- 전경구, 김교현, 이준석 (2000).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316-355.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전영자, 김세진 (1999). 대학생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3, 157-178. 인하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정의석, 노안영 (200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아존중감 및 신체건강과의 관계 연구. 학생생활연구, 33, 67-83, 전남대학교 카운슬링센터.
- 조명희, 박수선 (1998). 스트레스 지각정도에 따른 대학생 활적응: 서원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16, 83-100. 서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조맹제, 김계희 (1993). 주요우울증 환자 예비 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 381-399.
- 조성진, 전홍진, 김장규, 서동우, 김선옥, 함봉진, 서동혁, 정선주, 조맹제 (2002). 중·고등학교 청소년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의 유병률과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1(6), 1142-1155.
- 주중필, 민병일, 박성균 (2001). 일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그 해소방법. 스트레스 연구, 9(2), 41-49.
- 최미경 (2003). 대학생의 자각증상과 우울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3(3), 433-439.
- 최정윤 (2002). 심리검사의 이해. 서울: 시그마프레스.
- 최종후, 이재창 (1990). 학술논문과 통계적 기법. 서울: 자유아카데미.
- 황상민, 이세안 (1996). 세종대생의 취업에 대한 인식 및 학교의 역할에 대한 연구. 대학생활연구, 5, 98-24. 세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ldwin, C. M. (1994).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Aldwin, C. M., & Revenson, T. A. (1987). Does coping help? A reexamin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coping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337-348.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4). The effects of sampling error on covariance, improper solutions, and goodness-of-fit indices for maximum likelihoo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49, 155-17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173-1182.
- Beck, A. T. (1993). Cognitive approaches to stress. In R. L. Woolfolk & P. M. Lehrer (Eds.),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ess management (2nd ed., pp. 333-372)*. New York: Guilford Press.
- Beck, J. S. (1997). 인지치료. (최영희와 이정흠 역). 서울: 하나의학사.
- Bentler, P. M. (1989). *EQS structural equations program manual*. Los Angeles: BMDP Statistical Software.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iggam, F. H., Power, K. G., & Macdonald, R. R. (1997). Coping with the occupational stressors of police work: A study of Scottish officers. *Stress Medicine*, 13, 109-115.
- Bollen, K. A.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at are nonlinear in latent variables: A least squares estimator. In P. M. Marsden (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 223-251). Oxford: Blackwell.
- Busemeyer, J. B., & Jones, L. E. (1983). Analysis of multiplicative combination rules when causal variables are measured with error. *Psychological Bulletin*, 93, 549-562.
- Champoux, J. E., & Peters, W.S. (1987). Form, effect size, and power in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0, 243-255.
- Chaplin, W. F. (1991). The next generation of moderator research in personality psyc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59, 143-178.
- Chou, C.-P., & Bentler, P. M., & Satorra, A. (1991). Scaled test statistics and robust standard errors for non-normal data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A Monte Carlo study.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44, 347-357.
- Cicchetti, D., & Toth, S. L. (1998).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st*, 53(2), 221-241.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lomba, M. V., Santiago, E. S., & Rossello, J. (1999).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5(1), 65-75.
- Conway, V. J., & Terry, D. J. (1992). Appraised controllability as a moderator of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coping strategies: A

- test of the goodness of fit hypothesi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44(1), 1-7.
- Cudeck, R., & O'Dell, L. L. (1994). Applications of standard error estimates in unrestricted factor analysis: Significance tests for factor loadings and corre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5, 475-487.
- Ellis, A. (1995).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In R. Corsini & D. Wedding (Eds.), *Current Psychotherapies* (5th ed.), (pp. 161-196). Itasca, IL: Peacock.
- Endler, N. S., Speer, R. L., Johnson, J. M., & Flett, G. L. (2000). Controllability, coping, efficacy, and distres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 245-264.
- Evans, M. G. (1985). A Monte Carlo study of the effects of correlated method variance in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36, 305-323.
- Evans, N. J., Forney, D. S., & Guido-DiBrito, F. (1998). *Student development in college: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CA, San Francisco: Jossey-Bass.
-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 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5, 229-244.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 Gerbing, D. W., & Anderson, J. C. (1988). An updated paradigm for scale development incorporating unidimensionality and its assessmen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1, 132-160.
- Hains, A. A., & Szyjakowski, M. (1990). A cognitive stress-reduction inter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1), 79-84.
- Hall, J. A., & Rosenthal, R. (1991). Testing for moderator variables in meta-analysis: Issues and methods. *Communication Monographs*, 58, 437-448.
- Hardy, G. E., & Barkham, M. (1999).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s for work stress. In J. Firth-Cozens and R. L. Payne (Eds), *Stress in health professionals: Psychological and organisational causes and interventions* (pp. 247-259). New York: John Wiley & Sons.
- Hatmann, W. (1995). *The CALIS procedure: Release 6.11 extended user's guide*. Cary, NC: SAS Institute.
- Hu, L.-T., Bentler, P. M., & Kano, Y. (1992). Can test statistic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be trusted? *Psychological Bulletin*, 112, 351-362.
- Hunter, J. E., & Gerbing, D. W. (1982). Unidimensional measurement, second order factor analysis, and causal model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4, 267-320.
- Jaccard, J., Turrisi, R., & Wan, C. K. (1990). *Interaction effects in multiple regression*. Newbury Park, CA: Sage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 Jaccard, J., & Wan, C. K. (1995). Measurement error in the analysis of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ontinuous predictors using multiple regression: Multiple indicator and structural

- equation approaches. *Psychological Bulletin*, 117, 348-357.
- Jaccard, J., & Wan, C. K. (1996). *LISREL approaches to interaction effects in multiple regression*. Thousand Oaks, CA: Sage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 Jöreskog, K. G., & Sörbom, D. (1981). *LISREL V: Analysis of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s by the method of maximum likelihood*. Chicago: National Educational Resources.
- Jöreskog, K. G., & Sörbom, D. (1988). *PRELIS: A program for multivariate data screening and data summarization. A preprocessor for LISREL* (2nd ed.). Chicago, Illinois: Scientific Software.
- Jöreskog, K. G., & Sörbom, D. (1993). *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Chicago: Scientific Software.
- Jöreskog, K. G., & Yang, F. (1996). Non-linear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e Kenny-Judd model with interaction effects.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pp. 57-88).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enny, D., & Judd, C. M. (1984). Estimating the nonlinear and interaction effects of latent variables. *Psychological Bulletin*, 96, 201-210.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Kline, T. J. B., & Dunn, B. (2000). Analysis of interaction term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A non-technical demonstration using the deviation score approach.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2(2), 127-132.
- Koftera, M., & Sedak, G. (1989). Repeated failure: A source of helplessness or a factor irrelevant to its emerge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18, 3-12.
- Lazarus, R. S., & Folkman, S. (1991).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Stress, appraisal, and coping]. (김정희역). 서울: 대광문화사. (원전은 1984년에 출판).
- Lazarus, R. S., & Folkman, S. (1991). Coping and emotion. In A. Monat & R. Lazarus (Eds.), *Stress and coping: An anthology* (pp. 207-227).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e, C., Jamieson, L. F., & Earley, P. C. (1996). Beliefs and fears and type A behavior: Implications for academic performance and psychiatric health disorder symptom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7, 151-177.
- Marsh, H. W., Balla, J. R., & McDonald, R. P. (1988). Goodness-of-fit indexes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effect of sample size. *Psychological Bulletin*, 103, 391-411.
- McClelland, G. H., & Judd, C. M. (1993). Statistical difficulties of detecting interactions and moderator effects. *Psychological Bulletin*, 114, 2, 376-390.
- Meichenbaum, D. (1993). Stress inoculation training: A twenty-year update. In R. L. Woolfolk & P. M. Lehrer (Eds.),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ess management* (2nd ed., pp. 333-372). New York: Guilford Press.
- Milner, P., & Palmer, S. (1998). *Integrative stress counseling: A humanistic problem-focused approach*. New York: Cassell.
- Morris, J. H., Sherman, J., & Mansfield, E. R. (1986). Failures to detect moderating effects with

- ordinary least squares moderated-regression: Some reasons and remedy. *Psychological Bulletin*, 113, 99, 282-288.
- Muthén, B., & Kaplan, D. (1985). A comparison of methodologies for the factor analysis of non-normal Likert variables.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38, 171-189.
- Muthén, B., & Kaplan, D. (1992). A comparison of some methodologies for the factor analysis of non-normal Likert variables: A note on the size of the model.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45, 19-30.
- Neale, M. C. (1995). *Mx: Statistical modeling* (3rd ed.). Box 710 MCV, Richmond, VA: Department of Psychiatry.
- Olshevski, J. L., Katz, A. D., Knight, B. G., & McCallum, T. J. (1999). *Stress reduction for caregivers*. Philadelphia, PA: Brunner/Mazel.
- Petersen, A. C., Compas, B. E., Brooks-Gunn, J., Stemmler, M., Ey, S., Grant, K. E. (1993). *American Psychologist*, 48(2), 155-168.
- Ping, R. A. (1996). Latent variables interaction and quadratic effect estimation: A two-step technique using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9, 166-175.
- Pruchno, R. A., & Resch, N. L. (1989). Mental health of caregiving spouses: Coping as mediator, moderator, or main effects? *Psychology and Aging*, 4(4), 454-463.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Schemelleh-Engel, K., Klein, A., & Moosbrugger, H. (1998). Estimating nonlinear effects using a 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s approach. In R. E. Schumacker & G. A. Marcoulides (Eds.), *Interaction and Nonlinear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p. 203-238).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 173-180.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anaka, J. S., & Huba, G. J. (1985). A fit index for covariance structural models under arbitrary GLS estimation.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42, 233-239.
- Tanaka, J. S., & Huba, G. J. (1989). A general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s under arbitrary GLS estimation.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42, 233-239.
- Yang Jonsson, F. (1998). Modeling interaction and nonlinear effects: A step-by-step LISREL example. In R. E. Schumacker & G. A. Marcoulides (Eds.), *Interaction and nonlinear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p. 17-42).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Zedeck, S. (1971). Problems with the use of "moderator" variables. *Psychological Bulletin*, 76, 295-310.
- 원고 접수: 2003년 10월 25일
수정원고 접수: 2004년 2월 23일
게재 결정: 2004년 3월 6일

Lif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ollege Students: Testing for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with Structural Equations

Eun-Hee Lee
Konyang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life stress, coping styles, and psychopathology, and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on the life stress-depressive symptoms relationships. Participants were 153 college student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friend problems of the college students were related positively to depressive symptoms and that value problems of the college students were related positively to depressive symptoms. Problem-focused coping style was related negatively to depressive symptoms and emotion-focused coping style was related positively to depressive symptoms. LISREL analysis with latent moderating effects revealed that problem-focused coping style positive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 problems of the college students and depressive symptoms.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stress reduction interventions for adolescent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life stress, problem-focused coping style, emotion-focused coping style, psychopathology, depressive symptoms, moderating effect.

부록 1. 각 척도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선정된 문항들

1) 대처방식

요인/문항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alpha = .79$)	
59.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일이 잘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한다.	.64
19. 그 일에서 무엇인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얻는다.	.63
61.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57
35. 새로운 신념을 얻는다.	.56
29. 시작 때보다 좋은 경험을 얻고 끝낸다.	.56
53.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재발견한다.	.55
52. 내 감정 때문에, 다른 일들이 너무 방해받지 않도록 애쓴다.	.49
37. 공지를 가지고 곳곳이 버티어 나간다.	.52
5. 그 일(또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바람직한 것을 얻어내려고 협상하거나 타협한다.	.39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alpha = .72$)	
13.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군다.	.54
55. 그 일이 사라지거나 끝나버리기를 바란다.	.57
11.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57
43.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다.	.63
47.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 한다.	.39
40. 대체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하고 혼자 있으려 한다.	.51
31. 잠시 거기에서 물러나 있다.	.41

주. $N = 160$.

2) 생활스트레스

요인/문항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경제문제($\alpha = .88$)	
9.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대학생활이 위축되었다.	.81
11. 용돈이 부족해서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았다.	.90
12. 경제생활이 어려워서 취미활동을 충분히 할 수 없었다.	.83
35. 사 입고 싶은 옷을 살 돈이 없었다.	.66
이성과의 관계($\alpha = .62$)	
5. 이성친구와의 사이가 매우 악화되었다.	.91
6. 이성친구가 나의 의견을 따라주지 않았다.	.46
8. 이성친구와 헤어졌다.	.50
33. 이성친구가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음을 알았다.	.37

교수와의 관계($\alpha = .75$)	
19. 교수의 인격에 대해서 실망했다.	.52
21. 교수의 불성실한 강의 때문에 학습의욕이 저하되었다.	.77
43. 교수의 강의를 산만해서 요점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72
44. 교수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지혜와 안목을 얻을 수 없었다.	.61
가족과의 관계($\alpha = .70$)	
13. 부모와 의견충돌이 있어서 싸웠다.	.94
14.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63
38. 부모님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다.	.53
39. 형제나 자매와 심하게 싸웠다.	.36
진로 및 장래 문제($\alpha = .79$)	
2. 졸업 후 취직을 못할 것 같아 걱정했다.	.72
28. 취업이나 진로에 필요한 적성을 알 수 없어서 고민했다.	.62
30.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가족들의 기대만큼 성취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76
31. 사회적 불안정(예, 정치, 경제 등) 때문에 직장을 얻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다.	.71
가치관 문제($\alpha = .75$)	
22. 나의 가치관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회의에 빠졌다.	.71
23. 왜 사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에 방황했다.	.58
24.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천하지 못했다.	.51
45. 확고한 인생관이 없어서 방황했다.	.63
46. 이상과 현실간의 격차 때문에 갈등을 경험했다.	.61
학업문제($\alpha = .62$)	
26.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49
27. 전공 공부가 너무 어려웠다.	.63
47. 공부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았다.	.49
50. 중요한 시험을 잘 치지 못했다.	.55
친구와의 관계($\alpha = .62$)	
16.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	.46
18. 친구가 나를 무시했다.	.84
40. 친구로부터 무례한 행동을 당했다.	.62
41. 마음에 맞는 친구를 사귄 수 없었다.	.31

주. $N = 160$.

부록 II.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조절효과 검증에 사용된 공변량 행렬 및 LISREL 프로그램(ML 방법)

```

Analysis of interaction effects
Vocational life stress to the depression
data ni=10 no=153 ma=cm
lables
D CES-D VOC1 VOC2 PCOP1
PCOP2 SS13 SS14 SS23 SS24
cm sy
100.7588579
24.2620399 60.1768146
5.4642243 2.6251720 11.2291882
5.1989594 3.7008084 7.5771844 12.3857929
-6.9907981 -0.4770812 1.6281390 1.7338321 8.5416237
-4.8912539 0.2376161 0.9129257 1.6664087 5.4845201
6.8877709
9.7328193 3.4602986 1.2500399 3.0088612 1.7302021
2.3881366 110.7976218
15.0623796 7.0171918 2.9777822 3.1403948 2.3881365
2.5636206 83.3643092 107.1190449
11.1511488 15.6486221 3.0088614 2.0928162 0.7668733
1.9664851 72.8672685 53.9528575 137.3485298
13.8986110 21.1223966 3.1403951 2.1329173 1.9664852
5.4945716 52.8299600 73.7080934 93.7036016 112.6683164
select
1 2 3 4 5 6 7 8 9 10/
me
*
0.000000477 0.000000464 -0.000000150 -0.0000000535947 -0.000000281
-0.000000176 1.617498 0.906959 1.722500 1.655517
Mo Ny=2 Nx=8 Ne=1 Nk=3 Lx=Fu ly=fu Td=Sy Te=di Ph=Sy Ps=Sy Ga=Fu
Lk
Voc Pp Voc_by_Pp
Le
De_pr
Pa Ly
1 1
pa Lx
1 0 0
1 0 0
0 1 0
0 1 0
0 0 1
0 0 1
0 0 1

```

```
0 0 1
pa Te
1 1 1
pa Td
1
0 1
0 0 1
0 0 0 1
0 0 0 0 1
0 0 0 0 1 1
0 0 0 0 1 0 1
0 0 0 0 0 1 1 1
pa Ph
1
1 1
0 0 1
pa Ga
1 1 1
Pa Ps
1
fi ly(1, 1)
va 1 ly(1, 1)
fi lx(1, 1) lx(3, 2) lx(5, 3)
va 1 lx(1, 1) lx(3, 2) lx(5, 3)
eq lx(6, 3)=lx(4, 2)
eq lx(7, 3)=lx(2, 1)
eq lx(8, 3)=lx(2, 1)*lx(4, 2)
co td(5, 5)=ph(1, 1)*td(3, 3)+ph(2, 2)*td(1, 1)+td(3, 3)*td(1, 1)
co td(6, 6)=ph(1, 1)*td(4, 4)+lx(4, 2)*lx(4, 2)*ph(2, 2)*td(1, 1)+td(4, 4)*td(1, 1)
co td(7, 7)=lx(2, 1)*lx(2, 1)*ph(1, 1)*td(3, 3)+ph(2, 2)*td(2, 2)+td(3, 3)*td(2, 2)
co td(8, 8)=lx(2, 1)*lx(2, 1)*ph(1, 1)*td(4, 4)+ c
lx(4, 2)*lx(4, 2)*ph(2, 2)*td(2, 2)+td(4, 4)*td(2, 2)
co ph(3, 3)=ph(1, 1)*ph(2, 2)+ph(2, 1)*ph(2, 1)
ou mi sc it=500 ad=off nd=4 xm
```